

— 3월호 Vol.7 —

한동해 포럼 Newsletter

을독

2021. 3. 18

술꾼과 이야기꾼



정진호 회장
(한동대학교 교수)

3.1절로 시작하는 3월은 항상 우리에게 역사를 돌아보게 하고 도전을 주는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던졌던 많은 독립운동가의 생애는 감동을 넘어 경이감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내가 그 시절을 살았다면 과연 태극기를 들고 분연히 떨치고 뛰어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특히 첫날 죽기를 각오하고 만세를 부른 일곱 도시 (경성, 평양, 남포, 원산, 안주, 선천, 의주)에서 제일 앞장서서 만세를 불렀던 청년들의 용기에 더욱 가슴이 뻐집니다. 그 청년 중에는 류관순, 김마리아, 김순애, 나혜석, 권애라 등의 여성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조선조 500년간 남성의 그늘에 숨죽이고 있던 여성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또한 3월은 3.8 부녀절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부녀절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더 열심히 지킵니다.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상징적인 날이기도 하지만, 20세기를 변화시킨 불세비키 혁명이 이날 “빵을 달라”고 소리치는 여성 노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도 3.8 부녀절만 되면 북측 분들이 외국인 부인들을 다 초청하여 꽃다발도 주고 꼭 음식 대접을 하곤 했습니다.

3월이 또 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은 제 아내의 생일이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이지요. 술꾼으로 20대를 허무하게 보내던 저는 아내를 만나고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술꾼이 이야기꾼으로 바뀐 것이죠. 대학에 가서도 평소에 내성적인 성격의 제가 입을 열고 이야기를 할 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시절은 술도 안 먹고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보였거든요. 그런 제가 요즘은 술을 안 마셔도 마음껏 이야기할 뿐 아니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 앞에서 장시간 강연도 하고 꿈과 비전을 쏟아내는 이야기꾼이 된 것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 또한 꿈을 꾸게 만들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지난 20여 년간 해 온 셈입니다. 그것이 모두 아내를 만난 덕분인 셈이지요.

미국 보스턴에서 30살에 늦깎이 신앙인이 된 후로, 저는 술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북간도로 떠나는 인생의 결단을 한 것이지요. 마치 일제시대 독립운동가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1994년 처음 연변과기대 초창기 중국으로 갔을 때는, 무슨 회식 때마다 조선족분들이 부어주는 술잔을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한번 받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염려도 있었지만, 내가 술꾼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려는 일종의 종교적 신념과도 같은 과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의 당연한 표시라도 되는 양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참 어리석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과 아무래도 거리감이 생기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식대로 살아가고, 그분들은 우리를 자신과는 전혀 다른 별종의 인간들로 치부하고 말았지요. 오히려 조선족 어른들이 철없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신 술잔을 받아주었고, 폭넓은 이해심으로 우리를 참아주셨어요.

그러다가 2003년도에 평양과기대를 세우기 위해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니 내 믿음이 그동안 조금 더 성숙했던 까닭일까요? 하기사 예수님도 항상 가난한 자와 세상의 멸시 받던 사람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유쾌하게 지내셨다고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70년 분단의 세월을 넘어 기적과도 같이 만난 북한분들이 내게는 얼마나 소중한는지, 그들이 부어주는 그 술잔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찌하든지 그들과 말 한마디라도 더 섞고 싶었고 그들의 친구, 아니 동무가 되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시도 때도 없이 술을 부어주던 중국과는 달리 북한의 조선분들과는 체제가 달라서 평상시에 함께 나가 술 한잔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드물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북측 영도 서너 사람과 외방 측 영도 몇 사람이 모여서 교무회의 중에 북측 부총장이 다음 학기 강의 할 외국 교수진들을 도표로 만들어서 열심히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친해진 사이인지라 옆에 앉아 있던 제가 “왜 그리 감추고 있어요? 무슨 비밀인지 어디 우리도 한번 봅시다.”하고 반강제로 그 서류를 빼앗아 훑어보았어요.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독일, 스위스, 핀란드, 인도, 등 13개국 이상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들이 쪽 열거되어 있는데, 그 옆에 그 사람들의 국적을 적은 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비록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국적은 대한민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럴 수가... 제 국적란에 “남조선 괴뢰”라고 쓰여 있는 게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화도 나고, 기가 막혀서 제가 따지듯이 물었지요. “세상에 이렇게 서로 합작대학을 만들어서 힘을 합해 좋은 교육을 하자고 하면서, 남조선 괴뢰가 뭐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화난 목소리로 조금 언성을 높였더니, 그분들이 찢찢매면서 “정말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만든 서류인데,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그렇게 배우고 쓰다 보니, 정말 안됐습니다.” 하면서 내가 외려 미안할 정도로 더 미안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농담처럼, “그럼 오늘 사과 대신 회의 끝나고 술 한잔 사 주시오. 그럼 다 풀립니다.”라고 했더니, “그럽시다. 암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되어서 그 날 우리는 개장국 집으로 가서 유쾌하게 서로 사과도 하면서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지요. 그런 일들로 인해 평양에서는 제가 다시 술잔을 조금씩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술잔을 받는 까닭은 그들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였지요.



어쩌면 저는 선천적 술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를 이어 엄청나게 술을 드시는 조상들을 두었거든요. 저희 아버님 형제도 저희 형제들도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하는 특이 체질을 가진 집안이었어요. 더구나 전후 냉전 세대를 살았던 우리들은 술 권하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쫓아다녔으니까요. 그러던 제가 아내를 만나고 변했습니다. 술꾼이 이야기꾼으로 말이죠.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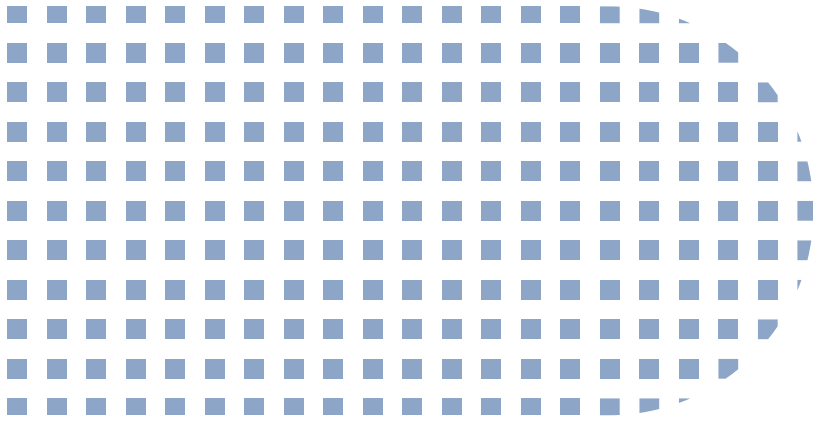
제가 종종 쓰는 수법 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쑥스러워 제 아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제 아내 몰래 말이죠. 아내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그것이 훨씬 자연스러운걸요. 어차피 부부는 일심동체니까요. 아내는 남편을 비추는 거울이나 마찬가지로 아니겠어요?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으레 그렇게 되는 법이지요.

지금은 거의 자정이 되었어요. 아내는 먼저 잠이 들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온종일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살짝 빠져나오는 것도 모를 만큼 아내는 피곤한가 봅니다. 평생을 엉뚱한 이야기꾼으로 살아 온 남편을 쫓아다니느라 녹초가 된 것 같아요. 신혼 초에는 남편보다 먼저 잠을 자는 일이 절대 없었거든요. 마치 그것을 아내의 수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신혼 시절... 제가 술을 많이 마시던 시절에도 새벽녘에 취해서 들어가 보면, 그때까지 아내는 귀엽게 화난 표정을 하고 앉아서 깨어 있곤 했거든요.

그래요. 아내가 나와 결혼을 한 걸 생각하면 지금도 신기한 일이죠. 만나기만 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는 장발의 히피 청년을 아마 그녀는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나는 어느 날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일어나 꽃을 한 다발 사 들고 무작정 그녀의 집으로 쳐들어갔었지요. 아마 그녀를 만난 지 채 한 달이 되었을까 하던 때였어요. 그리고 예비 장인과 밤늦게까지 술상을 받아놓고 고집스레 그 자리에서 결혼 승낙을 받아 버렸던 거예요. 아내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참 전설 같은 이야기지요. 우리는 두 달 후 12월 23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정말 들뜨고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였어요. 온 세상이 마치 우리들의 결혼 선물인 것만 같았다니까요.

언젠가 어느 집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집에서 "남존여비"로 산다고요. 그런데 그 뜻이 "남자가 존재하기 위해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라나요?" 모두 웃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지요. 후후후... 나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다고 말이지요. 저희 부부는 신혼 시절부터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아침마다 아내는 제 머리를 만져주고 제가 입을 옷과 넥타이를 골라 줍니다. 그것은 아내의 특권이지요. 나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아무리 바빠도 다시 옷을 바꾸어 입고 나가야 합니다. 어떤 날은 바꾸어 입은 옷이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원위치로 다시 바꾸어 입는 날도 있습니다. 짜증이 나다가도 나는 문득 참아버립니다. 아니 무슨 남자가 그러냐구요?

흐흠~ 사실 나는 원래 그런 남자는 아니었지요. 오히려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고집을 부리던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결혼 전에 아내는 내게 간곡하게 세 가지 부탁을 했었어요. 제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해달라고요. 아내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반주자로 자라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싫다고 하자 아내는 이번에는 그러면 주례만이라도 목사님이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물론 저는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마지막으로 결혼식 날 자기 교회 선배들이 와서 축가를 부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양보해야 할 것 같아서 승낙했지요. 그런데 막상 결혼식 날 그 사람들이 부르려는 노래가 아주 이상한 노래가 아니겠어요? 결국 그마저 못 부르게 했습니다. 지독한 고집쟁이였지요. 물론 결혼 후에도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뿌리친 채 매 주일 집에 혼자 남아 담배를 피우며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곤 했지요.



그러다가 우리는 공부하러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방을 쌀 때도 내가 무게 많이 나간다고 성경책을 빼 놓으면 어느새 아내가 살짝 집어넣고 그런 실랑이를 했었지요. 그러던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몇 년 만에 오히려 아내가 따라오기 힘들어할 만큼 앞서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그 이야기길 하자면 너무 길어서 오늘은 생략할게요. 아무튼 어느 날 나는 아내에게 중국으로 가겠다고 폭탄선언을 했지요. 아내는 음악을 하는 여자라 감정이 섬세하고 또 유난히 깔끔한 성격이었어요. 그녀는 큰 교회의 오르가니스트였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독주회를 하는 동안 자신의 음악 세계를 쌓아가던 중이었거든요. 더구나 그 당시 중국의 환경은 너무나 나빴어요. 아내는 몹시 놀라서 많이 울었지요. 아마 1년 동안 기도하며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마침내 결단하고 내게 환한 웃음으로 함께 가겠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날 저는 아내가 얼마나 기특하고 예뻐 보였는지 그때 속으로 결심했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한 가지만 빼고 일상적인 일들은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 주자고 말이에요. 그 한 가지는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을 정하는 문제지요. 물론 그것은 아직도 제가 결정한답시다.

아내는 처음 중국에 가서 고생을 무척 했어요. 공기도 나쁘고 물도 안 나오고 도무지 아내의 깔끔한 성격에는 안 맞는 곳이었지요. 더구나 나는 쉴 새 없이 집에 손님들과 학생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아내는 고기를 썰다가 팔과 어깨를 다쳐서 한동안 피아노와 오르간 치는 것도 힘이 들 정도였지요. 그 당시 중국에서는 고기를 덩어리 채 신문에 싸 주었거든요. 그 모습이 불쌍해서 중국에서 맞이한 아내의 첫 생일에 내가 특별한 선물을 사준 적이 있었지요. 연길 시내를 다 돌아다녔는데 정말 사줄 물건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는 중국도 정말 가난했고, 백화점 진열장이 텅텅 비어 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때 제 눈에 번쩍 뜨인 것이 있었어요. 커다란 직사각형 중국식 주방용 식칼이었어요. 그것만 있으면 아내가 고기를 썰 때 덜 힘이 들 것 같았지요. 나는 신이 났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기대에 차서 선물 포장지를 풀어본 아내는 화가 나서 그만 토라져 버리더라고요. 여자들이란 참~.

이상하게 매년 크리스마스 무렵이 되면 학교에 행사들이 많아서 우리는 결혼기념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결혼 10주년이 되던 해에도 그랬지요. 나는 교직원 수련회의 사회를 온종일 보고 있었어요. 아내는 계속해서 반주를 해야 했고요. 아내의 성격을 아는지라 10주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무척 걱정되었어요. 그런데도 도무지 선물 사러 갈 틈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던지 갑자기 샘(Sam)이라 불리는 노랑머리의 미국인 동료가 내게 살짝 다가왔어요. 우리 집 열쇠를 자기에게 빌려 달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어리둥절 그에게 열쇠를 건네주었지요. 저녁 늦게 행사가 끝나고 아내와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추운 겨울날 잠든 아이를 안고 택시를 잡느라 힘이 들었지요. 아내는 이미 화가 많아 나 있어서 내게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택시 문을 광 닫고 저만치 앞서서 걸어가는 거로 보아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았어요. 캄캄한 골목길을 지나 우리가 살던 아파트의 어두컴컴한 층계를 더듬어 올라갔지요. 그날따라 전등도 안 가지고 나와서 계단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아파트의 문을 여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서 한동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집안이 마치 딴 세상 처럼 변해 있는 것이었어요. 온 집안이 아름다운 풍선 장식으로 덮여 있었어요. 식탁에는 아름다운 꽃다발과 미국에서나 볼 수 있는 예쁜 포장지로 싼 선물이 놓여 있었어요. 아니 글썽 얼음에 쌓인 포도주도 한 병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치 우리가 신혼여행 때로 되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아내는 자기가 마치 신데렐라가 된 것처럼 놀라서 우두커니 서 있더니 돌아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꼭 안아주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 모든 것을 내가 어느새 준비했다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나는 아내의 그 기분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무려 1년 동안이나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신기한 일들이 틈틈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제자가, 어느 해는 아들이 아내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잊어버린 저를 위해 선물을 사 들고 사무실로 뛰어오곤 했어요.

중국에서는 아내를 ‘애인 동무’라고 불렀답니다. 나는 그 호칭을 무척 좋아하지요. 왜냐하면 연애하는 사람들처럼 가끔 다투고 토라지기도 하지만,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며 동무처럼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부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아내의 잠든 모습을 보면 사실은 정말 미안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무 그녀를 힘들게 했기 때문이죠. 올해도 아내 생일이 다가오는데... 걱정입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넘겨야 하나... 아마 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려야 하겠죠?

(“루카스 이야기”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하였음.)

나의 인생, 와인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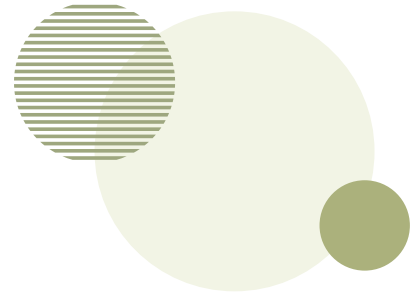
윤현중 위원
(원이스트씨포럼 사무국장)

나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은 의사인데, 그분이 모 대학교 소믈리에¹ 과정을 밟았다는 말이 있었다. 내가 와인에 관심이 많다 보니 그 장로님을 만났을 때 와인을 잘 아신다고 들었다고 하니 얼굴에 미소를 띠었다. 의사를 하면서 와인이 좋아 그 과정을 밟았지만, 소믈리에가 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며, 어떤 와인을 좋아하는지 물었더니 지금은 좀 가까이하지 않는 듯 김포공항 쪽 어디 할인매장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그 덕에 거기 멀리까지 할인매장을 찾아보고 온 적이 있었다. 장로님을 보면 확실한 와인은 지식인이 좋아하는 술임을 알 수 있다. 의사로서 일 년간이나 소믈리에 과정을 밟을 정도였으니까 확실히 와인은 매력적이다.

놀란 것은 페이스북에서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해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가입한다는 것이다. 여성도 많고 전문직 사람들이 골고루 가입하며 젊은이도 뛰어든다. 와인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면 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 와인을 교육하는 곳이 있고, 회사별로 내부적으로 와인 강사를 데려와 직원을 교육하기도 한다. 하나의 예의범절이나 매너, 에티켓 차원에서 가르치는데, 아마추어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와인의 향과 맛을 구분하고 음미할 줄 알면 될 듯하다.

우리가 커피를 roast, acidity, intensity로 강약을 조절해 마시듯이 와인도 당도, 산도, 탄닌, 알코올도수를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와인을 찾아 즐기면 된다.

1 소믈리에(프랑스어: sommelier)는 레스토랑 등에서 주로 포도주(와인, 뱅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나의 경우 처음에는 와인에 관심이 없었다. 다른 데 폭 빠져 있어서 와인은 몰랐는데, 자주 접하면서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의 첫 번째 와인 경험은 폴란드 유학 때다. 바르샤바대학교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폴란드 친구들과 함께 지낸 적이 있는데, 이들과 친해지다 보니 그들이 내 가족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 뭘 들고 갈까 고민하다 보니, 이 나라의 문화가 꽃 아니면 와인이었다. 물론 와인 대신 보드카를 들고 가기도 하지만, 와인이 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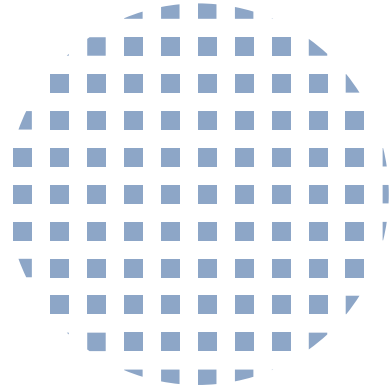
그런데 와인을 몰랐다. 와인을 모르다 보니 그냥 마트에 가서 3만 원 상당의 와인을 골랐다. 참 무모했다. 남에게 조언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와인을 가격 기준으로만 사 갔으니까. 하하. 나중에 폴란드 친구의 초대에 대한 답례로 그들 가족을 우리 집에 초대했다. 한 집 한 집 친구 가족을 차례로 불렀는데, 그들 역시 와인을 가져왔다. 그러다 보니 와인이 쌓였다. 나중에 고민이나 상사 주재원과 교류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것까지 합치니 와인이 많아졌다. 그렇지만 와인을 보관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양주처럼 장식장에 모아두었다. 이런 와인들을 다 마시지 못하다 보니 손님이 오거나 초청받아 갈 때 이것 중에 내놓거나 들고 가는 일도 있었다. 이 경우 위험성이 있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서 와인의 가치나 레벨을 몰랐다. 실제 낭패를 겪은 적이 있었다.

바르샤바에 살 때인데 어느 날 베트남계 가족을 집에 초대했다. 남편이 베트남사람이고 부인이 폴란드 사람인데 자녀가 나의 아들과 국제학교 동기라 학부모끼리 친교 차원에서 불렀다. 김치와 잡채, 김밥 등 한국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 부부에게 집에 있는 와인 중에 하나를 꺼내 내놓았다. 아, 그런데 이게.. 코르크 마개를 따고 보니 와인병에 침전물이 있었다. 아. 이건 아니잖아. 집주인 할아버지가 가져온 와인인데, 품질이 낮은 와인이었다. 그 부부에게 즉시 사과하고 다른 와인을 내놓았다. 그런 경험도 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와인을 대접하거나 선물할 때는 와인을 올바르게 고르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인생에서 와인을 가장 많이 마신 때도 폴란드에 있을 때였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어느 금융기관 주재관 부부와 친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집에 자주 놀러 갔다. 그 집에는 금융기관 주재관이어서인지 집에 와인이 많았다. 놀러 갈 때는 물론 와인 한 병을 들고 가지만, 그 집에 와인이 다양하게 있었으므로 와인을 늘 한 병 이상 마시곤 했다. 그렇게 와인을 많이 마셨지만, 코로 향기(아로마)를 맡는 것도 없고 혀로 와인을 느끼는 것도 없이 목구멍으로 넘겨버리고 말았다. 와인 그냥 술로 취급했다고나 할까.. 그랬더니 와인을 많이 마셨지만, 남는 것이 없었다. 그냥 숙취에 대한 기억만 남아 있다.

그러다가 와인에 대한 지식이 우연찮게 내게 들어왔다. 독일 베를린에서 바르샤바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 앞에 앉은 독일 여성이 말대꾸도 잘하고 씩씩하게 나와서 죽이 잘 맞았다. 그녀는 남편이 폴란드 바르샤바에 주재하고 있어 그곳에 가는 데 짐이 무겁다고 말했다. 무슨 짐이냐고 하니, 베를린에서 와인을 사 간다고 말했다. 폴란드 물가가 훨씬 싼데 왜 독일에서 와인을 사 가느냐고 물었더니, 와인은 독일이 낫고 종류나 가격도 폴란드보다 낫다고 말했다. 그럼 어떤 와인을 사 가는가? 무슨 와인이 좋은가? 평소 궁금증을 물었더니, 몇 가지만 알면 된다고 하면서 독일의 모젤강 부근 산지에서 나는 리슬링 화이트, 프랑스의 보르도지방의 레드, 이탈리아의 키안티, 스페인의 리오하가 유명하다고 말했다. 이 독일 여성이 말한 것이 나에게 최초의 와인 길잡이가 되었다.

이후 한국외대 어학연수원에서 영어 회화를 배우며 와인에 대해 더 얻어들을 기회가 있었다. 영어 회화 시간에 강사들에게 무슨 와인을 마시느냐고 물었다. 원어민 강사는 미국인이 아니면 캐나다인, 호주인인데 이들은 미국 와인이 좋지만, 아르헨티나는 말벡 와인이 유명하고, 칠레는 까르미네르, 호주는 쉬라즈 와인이 좋다고 말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화이트와인, 특히 소비뇽 블랑이 유명하다고 했다. 이렇게 안 지식이 지금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와인 시장은 광고로 인한 시장의 편견, 수입사의 선택이 작용해 조금 왜곡되어 있다. 레드와 압도적이고 화이트와인이 적다. 미국과 유럽은 레드와 화이트가 반반이다. 우리나라의 레드 비중은 비정상적이다. 화이트와인이라면 미국 캘리포니아나 뉴질랜드 말보루 지방의 와인이 권할 만 하다. 유럽산도 있지만, 한국에 오는 신선도나 등급, 가격이 좋지 않다. 레드와인은 워낙 많다. 좋고 이코노미한 것이 넘쳐난다. 레드도 미국 것이 전반적으로 좋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 것이 다 대중적이거나 싼 것은 아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그다음이지만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호주는 쉬라즈가 대표적이다. 프랑스, 독일 것은 비싸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저렴하다. 기타 전통의 마주앙 와인, 국내 와이너리가 생산한 국산 와인도 있다. 앙와인, 국내 와이너리가 생산한 국산와인도 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이중훈 회원
(한동대학교 겸임교수)

어린 시절 말썽꾸러기로 살았던 나는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문구가 너무 좋았다. 어딜 가도 내가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사실 보탬은 커녕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다행이었다. 입학원서 넣을 대학을 찾던 중 우연히 보았던 한동대학교, 그리고 영어로 적힌 비전을 한 글자씩 더듬더듬 읽으며 전율을 느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다. 다들 그렇겠지만 이등병 생활은 유독 힘들었다. 그러던 중 이라크 파병 병사를 뽑는다는 소식을 동기로부터 듣게 되었다. 이 소식은 내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감사하게도 나를 담당하던 중대장님이 추천서를 잘 써주어서 선발까지 되었다. 지옥 같았던 자대를 떠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특전교육단에서 1-2달 정도의 훈련을 마치고 이라크 내 쿠르드인들의 수도 격인 아르빌에 도착했다. OT기간을 마치고 첫 번째 작전에서 마주했던 조그만 쿠르드 마을의 현장은 처참했다. 그 때가 2005년이었으니 한창 글로벌, 세계화, 국제화라는 말이 많이 쓰였다. 그 때만 해도 이런 단어들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이미지는 뉴욕의 빌딩 숲이나, 유럽의 오랜 건물과 조화를 이룬 신식건물들 그리고 알파벳을 기반으로 한 문자들과 양복이었다. 하지만, 2004년 이라크 전쟁으로 폐허가 된 쿠르드 마을은 그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글로벌이라고 하는 장밋빛 패러다임을 산산조각을 내었다. 내게 익숙했던 아스팔트길과 그 위를 달리기 좋게 만들어진 자동차는 쿠르드 마을에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었다. 우기가 시작되면 시속 10km로도 다닐 수 없게 길은 진흙탕으로 바뀌었다. 이런 길을 뚫고 마을 재건사업을 위해 도착하면 해 맑은 얼굴로 우리를 맨발로 맞아주던 쿠르드 아이들이 있었다. 전쟁에 의해서 폐허가 된 마을에서 투명한 미소를 띠는 아이들을 보며 망치로 머리를 쿵 하고 맞은 것 같았다. 지금도 그렇지만 입시전쟁, 부동산전쟁으로부터 낙오하면 이번 생은 끝인 것 같았던 사회 분위기에서 온 나에게 쿠르드 민족은 이해할 수 없었다.

한 번은 현지 가정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대접받은 적이 있었다. 손님으로 가서 거한 식사를 대접받고 나오는데 연거푸 고맙다는 말을 했다. 그런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것이 내 인생에 처음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주인아저씨 얼굴이 계속 아른거렸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전쟁으로 파괴적이고 무서운 소식만 들리던 마을에 한국인이 도와주러 오고(소속이었던 자이툰 부대 이름이 Peace and Reconstruction Division이었다), 심지어 같이 교제의 시간을 가진 것이 아저씨 마음에 흡족했던 것 같다. 나도 뭔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준 ‘Why not change the world’가 그날 내 삶을 통해 실현된 것 같았다. 그리고 이로 인한 마음 한 쪽에 기분 좋은 잔잔한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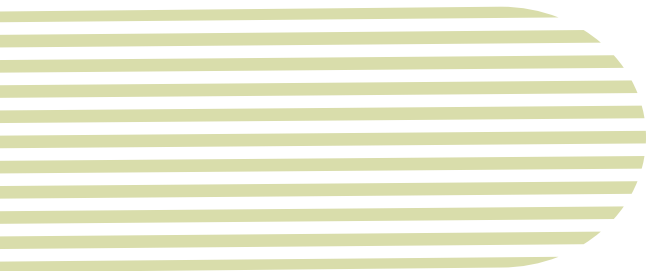
한국이 세계 10위 정도의 경제 대국이니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보다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 보다, 한국 아래의 90%의 국가에 관심이 갔다. 경쟁이 치열한 곳보다는 경쟁 일 덜 한 곳이 Why not change the world 하기가 쉬울 것 같기도 했다. 2008년에는 극동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육로로 체첸까지 갔다. 하필이면 체첸에 머물고 있는 동안 러시아와 북카프카즈 사이 전쟁이 벌어져 황급히 비행기를 타고 탈출했다. 그해 겨울에는 이집트에서 요르단 그리고 지금은 갈 수 없는 시리아를 지나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다녀왔다. 다른 민족 사람들을 만나며 역사 속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배우고 공감하려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민족이 궁금했다. 정확히는 북한과 그 너머에 있는 한민족에 대해 알고 싶었다. 그래서 연변에서도 한 학기 교환학생으로 지내보고, 육로로 중국을 가로질러

우루무치까지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카자흐스탄까지 다녀왔다.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싶었다. 그래서 큰 도시를 다니기보다는 작은 마을 위주로 다녔다. 식사를 같이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축구도 같이 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설픈 이유로 벌금을 내야 했다. 심지어는 뇌물을 강요받아 준 적도 있었다.

다녀온 지역 중에 유독 마음이 가던 곳이 있었다. 일본에 주권을 빼앗긴 역사의 아픔 때문인지, 팔레스타인이 마음에 갔다. 팔레스타인은 오스만 제국이 1차 중동전쟁에서 패하고, 중동국가들이 저마다 독립을 선포할 때 애매하게 남겨진 곳이다.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일부는 요르단 땅, 남부의 가자는 이집트, 그리고 북동쪽의 골란고원은 시리아와 연결되어 있다. 단순히 이스라엘과의 이슈도 있지만, 주변 아랍국가들 간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이 팔레스타인이다. 특히 이스라엘이 건국되던 시기에 발생한 그리고 계속해서 발발한 전쟁으로 난민들이 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난민촌에서 간간이 물과 전기가 끊기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되어 있는 집문서와 열쇠를 손에 꼭 쥐고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 집에는 난민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그 집에 살고 있다. 복잡한 행정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았다. 감사하게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 할 수 있는 기회와 장학금이 마련이 되었다. 결혼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에서 살게 되었다. 유대인과 아랍인들에게 공부를 하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솔하게 만났다.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위로가 되기를 바랐다. 공부하면 무언가 답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얻을 수 있는 건 없었다. 석사를 마치며 한국 정부의 대 팔레스타인 원조사업을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늘 난민들이나 팔레스타인에서도 비교적 가난하고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다 보니 Public Sector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 이런 현장의 필요가 정책 결정의 상황에 반영이 되기만 하면 하나씩 풀릴 수 있다고 단순히 생각했다. 하지만 복잡했다. 긴급한 필요들이 많았고, 그 필요들이 선정되는 과정은 공정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이 중요했다. 현지의 필요를 반영하는 것보다 문제없이 일을 처리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했다. 거기에 현지 카운터 파트와 실무자 간의 이해관계 정치적 이슈 그리고 외교적 이슈까지 있으니 참 어려웠다. 부단히도 노력했는데, 생각보다 이룬 건 별로 없었다. 마음만큼은 팔레스타인 난민 친구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는데 말이다.

사회운동을 통한 변혁 또한 복잡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 ‘소다스트림’이라는 세계 1위 탄산수 제조기 생산업체가 있다. 이 회사는 이스라엘 회사이고, 당시에 공장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내 정착촌에 있었다. (정착촌은 6일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 영토로 인식된 곳에 유대인들이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어 살고, 군인을 배치해서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을 지키는 곳이다) 2012년부터 악화하는 이스라엘과 가자 사이의 전투로 인해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여론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제품 불매운동이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대표적인 이스라엘 제품 중 하나였던 소다스트림도 타깃이 되었다. 이 운동의 핵심은 국제사회의 압력을 이스라엘에 가하는 것이었는데, 불뚱은 의외의 사람들에게 튀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정착촌 주변에 살며 소다스트림에서 일하던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었다. 정착촌에 있던 소다스트림 공장 운영이 어렵게 되자 다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었다. 서안지구와 또 다른 정치체제를 주장하는 가자의 하마스나 일으킨 이스라엘과 갈등이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노동자의 해고라는 결말을 낳았다. 가뜩이나 실업률이 높은(27%)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겨우 구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 것이었다. 거시적으로 보기에는 약자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유럽인들이 벌인 운동이 효과가 있었겠지만, 지난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팔레스타인에는 그 운동이 밖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왔다.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참 난감했다. 그들에게 딱히 해 줄 말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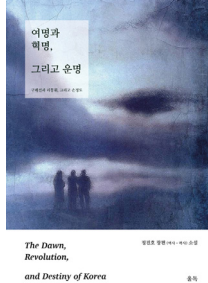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그간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Public Policy를 가르치는 학교에 지원했다. 실무 정책가를 양성하는 Oxford에서 전체장학금과 입학허가서를 받았다. 60개국에서 온 정책가들과 함께 철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데이터 기반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토론했다. 다들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 졸업 이후의 시간 동안 풀어야 할 숙제로 간직하고 공부를 마쳤다.

현장에서 한 발 떨어져서 거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책가도 좋지만, 현장에 있고 싶었다.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나는 교육과 경제 발전이라는 두 키워드에 마음이 갔다. 기술이 발달하며 생산되는 정보들을 잘 찾고, 획득한 정보들을 잘 소화하고, 소화한 정보들을 말이나 글로 잘 전달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훈련(교육)이 필수적인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은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과 위험을 담보로 가치가 매겨지고, 대출과 투자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역기능도 있지만, 비판만 하기 보다는 경험해 보고 싶었다.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다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사람들에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기술로 교육을 혁신하는 분야인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작년에 창업했다. 대출과 투자를 받으며 경험하며 뜻을 같이한 친구들과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삶에 대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20대 이후로 늘 해외에서 다른 민족들의 아픔을 고민하며 살았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리 민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다. 내 개인적인 삶에 영향을 많이 주었던 정진호 교수님께서 한동해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포럼을 시작하시며 나를 초대해 주셨다. 한민족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떠올랐다. 적대국인 중동에 고립된 채로 사는 조그만 수의 민족이다. 하지만 각종 중동국가의 이해관계, 그리고 그들 전체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레버리지 하며 기민하게 움직여 왔다. 그 결과 미국도 함부로 하기 어려운 나라 그리고 민족이 되었다. 지난 70년간 이슬람 사회의 공공의 적이었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등과 공공연히 협력을 외치는 관계가 되었다. 동해를 21세기 지중해라고 천명하며 한반도가 그 중심에 있으려면 우리 역시도 하나 됨과 기민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운동의 행렬에 같이 선 사람들과 만남과 그리고 함께 이루어 낼 일들을 기대한다.

Why not change the world!

3월의 소식



1) 정진호 회장님의 근현대 남북한 통합 독립운동을 다룬 신간 역사/역사 소설, <어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 (구례선과 리동휘, 그리고 손정도)> 하권이 도서출판 울독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2) 소그룹 홈스페이스는 슬랙 (Slack, 글로벌 오피스 메신저)에서 제공됩니다. 웹과 모바일 어플로도 제공이 되니 어느 방법으로든 편리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채널이 소그룹 홈스페이스이며, 슬랙 안에서 보안이 필요한 팀별 내부 공지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회원이 알아야 하는 전체 공지를 모두 슬랙에서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이 되어있는 회원님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유원포 모든 회원님들이 서로서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회계장부를 홈스페이스에 게시하였습니다.

4) 신입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모두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재영 교수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서예진 학생 (한동대학교 법학부)

이윤정 박사 (University for the Creative Art International College)

이성군 박사 (JHL 벤처 캐피탈 대표)

임진규 교수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허증수 교수 (경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황은하 교수 (배재대학교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4) 회원가입 안내

① 소개글



② 입회 신청서



③ 정관



* 재정상황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